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 문재인은 누구

시위 전력 판사 임용 안돼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남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및 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강제징집으로 끌려간 군대에서는 특전사 수중폭파요원으로 근무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으며 동태 방화사건 등 시국사건 등을 주로 맡아 변론했다.

변호인단 꾸려 盧 탄핵 수습



당시 그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등을 맡아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서로 존중하는 ‘동지적 관계’를 유지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변호인단을 꾸려 탄핵정국을 수습한 뒤, 2005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으며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침착하고 단담한 그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운명’ 출간 후 대선 주자 급부상

자서전 ‘운명’ 출간 이후,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추월하며 지지율 선두를 나타내고 있다.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간에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 아닌 연대만으로 총선후보 단일화 어려울 것”

최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인터뷰 날짜는 우연하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1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랑색 바람개비가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만난 문 이사장은 바쁜 일정 탓인지 조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답답했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각 정당 간에 서로 우세한 지역들이 있는데다 진보 정당들이 당선 가능한 많은 후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협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산·경남지역 민심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대통합 위한 민주당 全大

연말까지 꼭 해내야

부산·경남지역 민심

이젠 한나라 일방 지지 안해

차기 대선 출마 여부

총선 좋은 성과낸 후 생각

“-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민심은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많이 변했다.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의 당선과 김정길 후보의 45% 득표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맘에 들지 않지만 아직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대안으로 선택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 그래서 대통합 정당이 필요하다. 야권의 대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부산·경남 지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이는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심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나라당을 20년 동안 지지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부산의 인구는 350만이 무너졌다. 제2의 경제 도시는 현재 인천이다. 특히, 과거 부산과 경남은 유신독재에 맞서 부마항쟁을 일으켰고 6월 항쟁에 적극 나서서 등 전통적인 야권 도시였고 광주

못지않은 민주화의 성지였다.

“-부산·경남 등 영남지역에서 기대하는 내년 총선의 석수는.

“현실적으로 10석만 남기더라도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큰 계기가 되고, 이는 민심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켜 대선에까지 엄청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야권 대통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꼽힌다.

“야권 대통합의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이다. 야권 대통합 정당이아말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전국 정당이 될 것이다.

“-대선 출마 여부는 언제쯤 밝힐 것인지.

“통합운동을 시작한 만큼 지금은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선택은 통합이 잘 되고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후에 생각할 것이다.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는데, 대선행보인가?

“그렇지 않다. 노무현 재단 기념 사업의 하나로 노 전 대통령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 현안이 발생, 조금 연기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로서 지지를 상소 요인을 어떻게 보는지.

“이명박 정부의 심각한 실정과 민심 이반에 따른 정권교체의 열망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원이 매우 큰 것 같다. 제가 정치에 거리를 뒀다고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여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게 그런 역량이 있는지 참고민스럽다. 한편으로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후광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독주 구도를 어떻게 보는지. 정치인 박근혜 대표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연한 현실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이 대통합 등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분의 장점이라면 역시 원칙, 신뢰성, 일관성 등의 이미지를 잘 견지해오고 있으며 높이 평가할만하다.

“단점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이 별로 없는 듯 보이고 유신시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등 시대 퇴행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서울시장 보선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통합 단일 후보로 치러야 하고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경선을 통해 윈 샷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정당들이 나름대로 경선 캠프-오프를 통해 후보를 압축, 본선에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민주 정부 대통령을 만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분 대통령이 안타깝게 눈 감으시면서 남긴 유산 “깨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함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싶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노무현재단 mjna@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명인의 자부심!' (Famous Person's Pride!) featuring '창평한과' (Changpyeong Han-gwa) products. Includes text about national food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jeong Food Co., Ltd.

Advertisement for '안복자한과' (Anbokja Han-gwa) featuring '입안 가득 스미는 오색빛깔 고운 자태' (Soft and colorful han-gwa filling the mouth). Includes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nbokja Han-gwa.

Advertisement for '다양한과' (Damyang Han-gwa) featuring '이 만드는 고품격전통한과로 고향의 마음을 전하세요' (This traditional han-gwa conveys the heart of hometown). Includes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amyang Han-gwa.